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전세연

학번: 20235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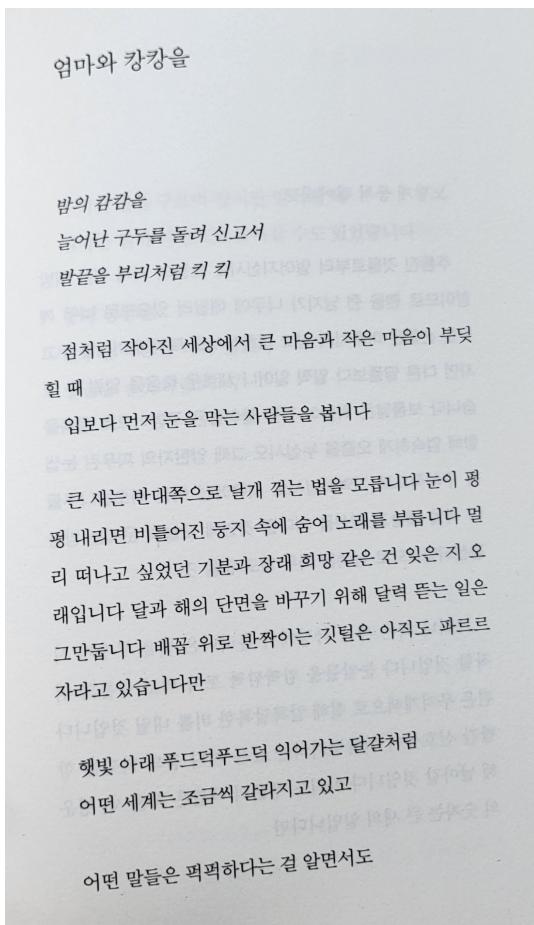
상담 일자: 9월 26일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너무 확고하게 화학만 보고 달려왔는데, 고등학교 입시 후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내가 정말 화학을 좋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엄마와 창강을



금쪽
상담소

금쪽상담소 소장

노랗게 풍쳐 뱉어내고

주름진 것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오늘의 시계 침은 역방
 향이므로 펜을 쥔 남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므로 너무 깨
 끗한 손들은 마주치지 말고 피하십시오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다른 딸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로운 죽음을 알릴 수 있
 습니다 보름달은 하늘이 잘못 뚫어놓은 구멍이므로 동쪽을
 향해 염숙하게 오줌을 누십시오 그때 양탄자의 찌푸린 눈썹
 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서쪽에선 어린 바오밥나무들
 이 목을 내놓고 당신을 기다릴 것인데 오늘의 운세는 방금
 갱신되었으므로 남쪽은 아무 말도 없을 것

그러나 작은 새는 극장에서 흘러나온 빛을 부수기 시
 작할 것입니다 눈알들을 깜빡깜빡 쪼아 먹고 구름의 뒤
 편은 무지개색으로 칠해 알록달록한 비를 내릴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어슬렁거리는 숲을 지나 춤의 바깥을 향
 해 날아갈 것입니다 아직도 행운의 색깔은 작은 새, 행운
 의 숫자는 큰 새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발을 구르며 잠시만 멀어질 때
 엄마는 엄마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밤의 강강을
 눈부신 죽음을 나눠 입고서
 발끝을 송곳처럼 킥 킥

해석

2연 큰 마음과 작은 마음이 부딪힌다->화학을 하려는 마음과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마음이 부딪힘

3연 큰 새가 반대쪽으로 날개 꺾는 법을 모른다->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음을 의미

4연 어떤 세계가 조금씩 갈라진다->기존 세계에 조금씩 의문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에 눈을 돌림.

5연 어떤 것을 노랗게 끓쳐 뱉어냄->고민을 해봄

6연 난해한 일상을 서술->기존의 목표와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

7연 작은 새가 흘러나온 빛을 부수기 시작->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함

8연 우리가 발을 구르며 잠시만 멀어질 때->이러한 고민을 한발짝 뒤에서 생각해보면 더 큰 시야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정이유

전세연 금쪽이가 두 가지 진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이 시에서 큰 새와 작은 새가 나타내는 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8연에서 서술된 것처럼 한발짝 뒤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를 하고 싶어 고르게 되었다.

금쪽
상담소
상담

금쪽 상담소 소장

요절한 여름에게

요절한 여름에게

편백나무가 날아오르는 시간
당신은 그대로 숲을 향해 걸어가

첫번째 돌에 표시해둔 나를 지나쳐
마치 갈림길에서 헌트라도 쓸 것처럼
척척함과 약속은 잘 어울려
더듬더듬 목구멍 들춰 어둠을 만지듯이

나는 오늘 가지색 인사법을 배웠고
카나리아를 내년 귀퉁이에 묻어주었지
철제로 된 새장이 무엇을 책임져?

날개 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어쩐지
뾰족한 부리는 당신의 피상
나는 오늘 도도한 래몬처럼 거절했고

편백나무의 날숨은 뿌리를 놓치는 것
배 속이 잠시 투명해지는 그런 것
내가 따뜻한 흙을 펴 먹는 동안에

당신은 그대로 숲을 향해 걸어가

새끼손가락을 주머니에 넣고
어제로 통하는 길을 잘 안다는 듯이
그러나 모르는 발바닥처럼
하늘을 지나치게 올려다보며

우리는 절벽을 잊어버릴 수 있어

똑똑한 버섯들은 어떻게 우는지 들어봐
조금씩 해가 길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당신은 그대로 숲을 향해 걸어가

해석

- 1연: 그동안 걸어온 길을 나타냄
- 2연: 이전에 생각하던 전공을 지나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 함.
- 3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대학 생활을 나타냄.
- 4연: 잊어가는 경험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전공들에 대한 거절을 나타냄.
- 5연~: 소소한 경험과 체험, 휴식들을 통해 쉬어 가며 자신의 길을 잘 찾을 것임을 보여줌.

선정이유

대학에 와서 많은 이들이 가지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과 전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지스트의 학생들은 본래 본인이 하고자

했던 전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보였다. 세연이가 그동안 화학을 좋아하고 공부하였으나, 다른 전공을 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IPUBLIC
E
V
W
IWEER
GIF
COR
PMAT
I



금쪽상담소 소장 (인)